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사김의 과정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오늘, 제 7차 성찬식

일시: 11월 5일(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벤엘 찬양대원 모집

찬양시간: 주일 3시 30분(찬양예배)

모집 기간: 11월 5일(주일)~11월 30일(주일)

모집인원: 각 파트별 3명

문의: 총무 김선희(010-2297-0039)

세움위원회 교사 모집

■소망부 교사 모집

- 분야: 반교사, 행정교사, 보조교사
- 장소: 본당 1층 갈릴리홀
- 시간: 주일 12:00~13:00
- 문의: 최준호 목사(010-9036-8229)

■사랑부 청년반 신입교사 모집

- 분야: 반교사(양육교사), 찬양팀 교사, 행정교사, 보조교사
-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 시간: 주일 11:00~12:00
-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에바다부 교사 및 헬퍼, 스태프 모집

- 분야: 교사, 찬양팀 연주자, 방송 스태프 등
- 장소: 제2교육관 3층 및 본당 방송실
- 시간: 신청서에서 확인 (다양한 시간)
- 신청: 우측 QR코드로 신청서 작성
- 문의: 김유석 목사(010-5845-4645)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김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김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더 깊고 순수한 헌신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외적인 활동이나 헌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사김에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없이 단순한 활동들만 있다면 메마른 종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애정 없는 결혼생활이 고역이듯이 친밀함 없는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기쁨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

10.29-11.12(주일)

문의: 임대영 목사 (010-5449-9224)



부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꿈양육부, 어와나부

교사지원분야

반교사	맡겨진 어린이(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예배팀교사	예배와 관련된 영상, 자막, 좌석 배치, 디자인 등으로 섬기는 교사
행정교사	출석관리, 디모데교적관리 등 부서에 필요한 문서와 행정관리 교사
기타	보조교사, 새신자 교사

* 부서별 예배 시간과 장소는 8면 참고

* 신청서는 본당입구에서 작성하고 신청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유아세례식 및 교육 안내

유아세례교육: 11월 5일(주일)~11월 26일(주일) 총 4주간

유아세례식: 12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신청 대상: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교인 부모

(부모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함)

신청 기한: 11월 5일(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큐알코드)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날짜	시간	교육내용	담당
11월 5일(주일)	14:00~15:00	유아세례의 성경적 의미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11월 12일(주일)	14:00~15:00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세례	
11월 19일(주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11월 26일(주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문답(해당 교구 & 부서)	
12월 3일(주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14:50까지 본당 입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3-9)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개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교회 혹은 교단적 차원에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을 지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로마 천주교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체는 믿음이었음에도, 로마 천주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건강한 말씀을 성도에게 공급하여 영적으로 잘 먹여야 할 교회의 주된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돌이키고자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베드로 서신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이라는 고백은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생각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마 16:18)”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과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의 실제 의미는 조각돌에 불과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예수님 자신 혹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봄이 타당하기에 베드로를 교황으로 칭함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베드로의 신앙과 그가 전하는 교훈이 탁월하였음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믿음의 수장다운 리더십과 패기 외에도,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심시켰던 그의 설교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사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벧후 1:13)”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장막을 벗어난 주님 품에 안김을 뜻하기에,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박국을 인용하며 성도들에게 도전하였듯, 사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았던 환경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신앙을 혼드는 세 가지 부류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요소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와 같은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주의의 유혹도 다소 덜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거짓 선생이란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 시대에서는 세상이 받아들이는 법한 그럴 듯한 논리로 성경의 가르침을 뒤흔드는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는 이들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 ‘진화’는 발전이나 개선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에 이르렀기에, 성도로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벧후 2:7)” 무법한 자는 음란을 부추기거나 음란을 당당하게 행하는 이들입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미혹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곧은 신앙을 파괴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벧후 3:3)” 말세에 나타나는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이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4절b)” 베드로후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가리키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원어로는 ‘신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만 갖는 고유의 성품(전지전능 등)과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착함, 의로움, 진실함 등)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5-7절)” 우리에게 공유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에 생기지 아니하고 과정을 통하여 점차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 덕이 꽃 피고, 동일한 방식으로 덕 위에 지식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의 성품의 참여함은 곧 과정을 겪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3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4절a)”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를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선물로 주셨다’는 뜻인데, 건네주거나 넘겨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첫 걸음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 1년 전, 매일매일 받은 선물과 누군가에게 주었던 선물을 일기에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 힘쓰느라 거의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날에도, 정말 많은 것을 받고 또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보다 유익하게 행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약속을 선물로 받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멋지게 자리잡게 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부지런해지기에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지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귀한 교훈을 마음에 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2 Peter 1:3-9)

Rev. Kyu Sam Han

Anyone can stumble while leading a life of faith. Repentance on a personal level is relatively easy, however, it is not easy to turn back from a walking on the wrong way on the level of church or Christianity branches. This is the reason that even 500 years after the Reformation, we commemorate Reformation Week in the last week of October every year in order that we observe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that we should hold on to and move forward to the upright way. At the time of Luther's Reformation, Catholic Church could not fulfill properly leading saints before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the on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proves to be One who rewards those who seek Him.(Heb 11:6)" Even though the essence of going forward before God and pleasing God is faith, Roman Catholic Church did not emphasize faith. They discarded the church's main duty to provide saints with healthy words to feed them spiritually well. That's why Reformation leaders including Luther risked their lives and tried hard to turn back to the spiritually vigorous church through the motto, "by Scripture alone", "by grace alone", "by faith alone", "by Christ alone", "glory to God alone".

The Apostle Peter and Epistles of Peter

Peter's confession to Jesus in Caesarea Philippi,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Matt 16:16)" is the main reason that Roman Catholic Church thinks Peter is the first pope. Jesus was pleased with Peter's confession and sai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it's because the name Peter sounds similar to rock. However, the real meaning of the name Peter refers to just pieces, and becaus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rock Jesus mentioned is the confession of faith of Jesus himself, or of Peter's, it is difficult for me to agree with calling Peter a pope. However, apart from this, many people agree Peter's faith and the lessons he delivered were remarkable. Besides his leadership and audacity as a head of faith leading early churches, I think the sermon through which he converted 3,000 people in Acts 2 was the most powerful sermon in the history. Unlike the Apostle Paul who pioneered numerable churches, Peter focused on the ministry of uniting churches already established into one. That's why we find general principles of faith rather than specific issues of churches in epistles of Peter. "I consider it right, as long as I am in this earthly dwelling, to stir you up by way of reminder,(2Pet 1:13)" To put the tent meaning the life of the flesh aside means to be embraced in arms of the Lord, so in 2 Peter is contained the character of the will Peter left finally. As if Hebrews challenged saints by quoting Habakkuk, the Apostle Peter also exhorted saints in the environment where it is not easy for them to live with faith.

Three issues shaking faith

At the time when 2 Peter was recorded, the elements that interrupted the saint's life of faith were not suffering nor persecutions. The temptation of secularism was a little bit weaker. "But false prophets also appeared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also be false teachers among you, who will secretly introduce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Master who bought them, bringing swift destruction upon themselves.(Pet 2:1)" False teachers refers to those who teach heresies, and in our time, they can be those who shake the teachings of the Bible by credible logic that the world would accept. For example, they are the ones who teach false concept about sex, or those who assert the theory of evolution. Especially in these days, 'evolution' reached to the degree of being used as a synonym of 'progression' or 'improvement', so saints have to be alert. "and if He rescued righteous Lot, who was oppressed by the perverted conduct of unscrupulous people(2Pet 2:7)" The unscrupulous are those who boost perverts or do the perverted conduct boldly. They delude us into using our bodies that have to be used as weapons of justice as weapons of injustice so that they

destroy the upright faith that leads us to go before God. "Know this first of all, that in the last days mockers will come with their mocking, following after their own lusts (2Pet 3:3)" Mockers in the last days deny the judgment as well as the existence of God. In order for us not to be mocked by them, we should go forward to the mature faith that we are rather pleased with the judgment by virtue of God's acknowledging us despite our shortcomings and weaknesses.

The divine nature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on account of lust.(v. 4b)" The key word passing through 2 Peter is the divine nature which indicates the saint who is not shaken in the world by upright faith. The original word 'divine nature' refers to the nature of God within us 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Scholars of Systematic Theology classify divine nature into the nature that only God has(omniscience and omnipotence, etc.) and God's character that a human that is a creature shares (goodness, righteousness, truthfulness, etc.), and the latter is within us. "Now for this very reason also, applying all diligence, in your faith supply moral excellence, and in your moral excellence, knowledge, and in your knowledge, self-control, and in your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in your perseverance, godliness, and in your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in your brotherly kindness, love.(2Pet 1:5-7)" The character of God which is shared within us does not take place at once but is gradually accomplished through procedures. Virtue blossoms on the soil of faith, and by a similar method, knowledge blossoms on virtue. Therefore, it teaches us taking part in the divine nature means going through procedures.

"for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tru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excellence.(v.3)" "Through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v.4a)". Another words that indicate the image of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are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and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The notable point is the expression 'granted', which means 'gave as a gift,' in the original language, has considerably distinguishable meaning from 'passing over' or 'handing over'. It is because even the first step of participating in the divine nature belongs to the gifts that we are to receive by virtue of Jesus Christ. About one year ago, I used to write the gifts I gave to someone and the gifts I received from someone every day in a diary. By the way, I came to realize I gave and received so many things even on the day when I could meet no one because I was concentrating on studying the Bible and praying. Because you can act more beneficially, if you try to live a life that becomes a gift to others, our existence itself is likely to become a gift owing to the gift Jesus gave us. Because we can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by receiving all things pertaining to life, godliness and promises as gifts, the character of God grows within us splendidly. "For if these qualities are yours and are increasing, they do not make you useless nor unproductive in the tru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v.8)" The phenomenon that occurs accordingly when we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is that the knowledge of God is increased and that we are busy knowing God, which becomes the indicator that estimates the partaking of the divine nature.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and I keep in mind the Apostle Peter's precious lessons about the way of leading a firm and unshakable life and partaking of the divine nature.



청년2부 가을 수련회

청년2부(메이커스)는 10월 19일(목)~21일(토) 1박 3일 동안 '사랑, 그 분명한 증거(요일 4:7~4:21)'라는 주제로 가을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박 3일의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2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기쁨 가운데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메이커스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했던 모든 활동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진실하심을 잊지 않기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8 홍은애

첫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참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도 되었고, 저의 신앙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메이커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 또한 많은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신 면려회, 찬양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새가족 잘 챙겨주신 팀장님과 조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6 장안성



저는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혼자 받는 상처, 또는 어떤 질투. 이러한 감정들은 언제나 사랑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들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늘 즐거운 우리 김한나팀 사랑합니다. 함께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 히엘 찬양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되어 주고 내 옆을 든든히 지켜준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일 4장 17-18)"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메이커스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9 전숙현



제1기 통일선교사역자훈련 심화과정을 마치고

2023년 6월 통일선교사역자훈련 기초과정을 거쳐 심화과정을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화과정은 교회 안에서 북한 통일선교 관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나 감당할 성도들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서 탈북민사역자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탈북민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 내용을 워크숍 형태로 교회 내 탈북민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가 건강하게 동역의 개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3주 과정 중 1, 2주는 강사를 초빙하여 “제1강 통일선교 기도사역과 실제”(강사 여주현목사), “제2강 탈북민교회 현황과 실질적 사역”(강사 정형신 목사)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3주 과정은 통일체험학습으로 “DMZ로 떠나는 통일이야기”로 총신대 서울통일교육센터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화과정은 총 48명이 수료하게 되었고 통일체험학습은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선교위원회 선교3부를 통한 통일선교 사역이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기도사역과 탈북민 교회와의 동역관계에 대한 인식변화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해 봅니다.

선교위원회 선교3부 황석환집사



아기자기한 금수강산을 돌고돌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 건너편 북한마을을 바라보며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에 갈수 없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가을걷이 황금 들판에 햇살이 가득하여 평온한 들녘인데 남북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북한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통일선교부의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교구 정순경 권사

저는 중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서,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통일이 정말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통일선교 사역자훈련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듣게 되었고, 제 생각에는 점차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제 기도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통일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에 대해 배우며, 기도에 대한 저의 자세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변함없는 북한의 모습을 탓하며, 기도가 느슨해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참 소망을 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그저 답답하게 느꼈다면, 이제는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통일’이란 남북 영토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통일 선교는 ‘탈북민 교회를 섬김으로써, 북한 이탈주민들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같은 포도나무 가지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도우면서 어둡고 악한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함을 배웠습니다. 비록 북한과 남한은 38선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줄 압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마땅히 구할 것을 아를 때, 그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임을 공감하며, 앞으로 항상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길을 성도 안에서 이루어나가십니다.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청년부 김수아



다음 세대들의 학습, 세례, 입교 후기

어렸을 적 다닌 교회에서 세례 시기를 놓친 후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후로도 성년이 되어 직장생활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고 지내다가 우연히 충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오게 된 충현 교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 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저의 간절한 의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학습과정들 통해 하나님과의 교류를 느끼며 더욱 강화되고 깊어진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 수 있었습니다. 세례식은 목사님이 삼위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주심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세례식을 마친 성도들의 얼굴은 밝게 빛이 나고 있었고 저 역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습자 세례자 모두 함께 축하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6개월 뒤 제가 세례 받는 날을 떠올려 봅니다. 저의 신앙과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제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신앙을 많이 응원 해주시고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브릿지 공동체 목사님과 지체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브릿지 공동체 임경미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틀 안에 살아오면서 저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여름 수련회에서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해오곤 하면서, 저의 삶과 마음 안에는 '나는 이미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했고, 저의 신앙을 도전받을 시련이나 어려움 또한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유아 세례자라는 신분에 있었던 것만큼 그 이상 더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저의 신앙을 제 입술로 고백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 믿음의 그늘 아래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인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제게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신앙의 성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한 발짝 나아가게 되기를 결심하여 입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저를 주님 앞에 독립된 신앙 주체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개월간 입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깨닫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죄인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시인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청년부 이시현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거룩한 세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기도와 축하를 받으며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알아 가게' 하시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청년3부 이상학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를 크신 사랑으로 불러 주셨기에 저의 신앙생활이 가능했음을 세례를 받고서 비로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준비하는 시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사랑 받을 자격 하나 없던 저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격했던 처음 회심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서요. 그리고 저의 세례를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하는 메이커스 공동체가 있음에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꾸준히 출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어느 샌가 익숙함에 가려져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앞으로의 제가 되기를 바라며 결단해봅니다. 연약한 믿음이 건강히 자라게 해준 충현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알려준 메이커스 지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청년2부 최재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늘 함께 하신다) 성경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 였습니다. 충현교회를 남편과 함께 처음 오게 되었고, 태어난지 100일 된 사랑하는 예성이와 함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례를 통해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족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 사용하실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첫 공동체 생활인 신혼가정부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충현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가정부 고수진



2023 소망부 가을 수련회



2023년도 소망부 가을수련회는 요한일서 4장 7~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귀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망부 안에서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신 이승순 권사님과 레크레이션으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신 김일호 집사님의 명품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 성도님들의 점심을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으셔서 원활하게 맛있게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병식 집사님의 특송으로 점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위안복 목사님의 "일어나 걸으라" 주제로 열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상덕 집사님의 오페라 현장에서의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통하여 성도님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인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성도들과 영상 성지순례를 함께 한 시간으로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신 담임목사님과 교구, 그리고 권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소망부 가을 수련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은혜를 부어주신 시간들이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두 수련회 전 과정에 참여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 특히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강사님의 설명에 아픈 몸도 잊으시고 열심히 따라하시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 소망부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종일 천국잔치에서 새 건강과 새 힘을 주셨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장로님, 목사님!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성명선 은퇴권사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교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회계직원 0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타교인은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및 기한 : 이메일 접수(eohyun2@naver.com)

문의: 사무국 552-8200(401), 010-4181-1714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협조 안내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는 ‘본당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실시에 따른 교우들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 주요공사 내용 및 일정

1. 공사내용 : 본당 지하1, 2층 주차장 바닥, 천정, 벽체 등의 환경개선
2. 공사기간 : 2023. 11. 6(월) ~ 2023. 12. 30(토)
가. 지하2층 폐쇄 : 11. 6 ~ 26 (주일 주차불가)
나. 지하1층 폐쇄 : 11. 27 ~ 12. 30 (주일 주차불가)
- 지하2층부터 지하1층까지 순차적으로 공사 실시, 공사기간 총별 폐쇄 조치
-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안내) 사항

1. 지하주차장 1, 2층별 공사기간 동안 주일 주차 및 통행이 불가합니다.
2. 모든 성도님들은 공사기간 중에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 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부득이 주일에 차량을 주차하실 경우, 다른 주차공간 또는 교회블록 바깥(동, 서편) 도로변에 주차 하시기 바라며, 차량안내봉사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4. 폐쇄된 구역은 위험하여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충현교회 봉사위원장, 건축위원장, 교구위원장, 행정위원장 -

금주 단기선교 파송

	선교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네팔 2팀	네팔 포카라	이성훈 안수집사 외 8명	11월 6일(월) ~ 11월 13일(월)

예배 담당(11/8~11/12)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1/8	수요 I	죽임당하신 어린양 (계 5:1-8) 박요셉 목사	권순동	송정화
11/10	금요일집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롬 7:1~6) 한규삼 담임목사	윤준식	
11/12	주일 I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계 14:1-5)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강태영
	주일 II		문진호	김희동
	주일 III		박영환	홍금성
	주일찬양	무익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눅 17:7-10) 이성환 목사	임진실	전승기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1/6~11/12)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6 (월)	윤성복/최광수	욥기 3:1-26	9교구
7 (화)	한규삼/조윤준	욥기 4:1-21	전교인
8 (수)	임대영/전형중	욥기 5:1-27	전교인
9 (목)	박영환/박영섭	욥기 6:1-30	6교구
10 (금)	박동진/구승희	욥기 7:1-21	2교구
11 (토)	김상래/김상래	욥기 8:1-22	전교인
12 (주)	윤준식/윤준식	욥기 9:1-16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정석훈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8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르위지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847	곽규환	기본과정	
2	1848	정미현	기본과정	
3	1865	김종호	기본과정	김선정
4	1866	안경자	기본과정	김선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215	박승주	청년2부	
2	1259	박승후	청년2부	
3	1262	한수아	청년2부	
4	1666	박혜민	청년2부	
5	1667	박유정	청년2부	
6	1669	김혜수	청년2부	

<교육 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388	이환희	유치부	
2	1403	한현준	중등부	
3	1466	김서현	유년부	
4	1481	김현욱	유치부	
5	1545	박지원	유년부	
6	1631	김다은	중등부	
7	1836	김은호	영아부	
8	1843	김시은	영아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835	임숙희	기본과정	
2	1844	강월석	기본과정	박숙정
3	1849	김수덕	기본과정	
4	1861	이후선	기본과정	
5	1862	김승남	기본과정	이희우
6	1863	성선용	기본과정	유일욱
7	1868	카니	기본과정	김연욱
8	1869	이태림	기본과정	

결혼

1. 윤창영 군(김희장 씨의 아들)과 정은영 양(정동귀 집사·박옥순 권사의 딸, 3교구) / 11월 11일(토) 1200 슈슈몽드

별세

1. 이성진 타교목사(이명훈 성도의 부친,청년2부 / 이은미 집사의 부친·장성호 집사의 장인, 청년3부) / 10월 29일 별세, 10월 31일 장례
2. 방은석 집사(이성관 은퇴집사의 아내·이동후 성도, 이미현 성도의 모친, 9교구) / 10월 29일 별세, 10월 31일 장례
3. 김운 성도(박명순 성도의 남편, 3교구) / 10월 31일 별세, 11월 2일 장례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종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장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이연천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힐렐루찬양대장	최현규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세울위원장	허만선 충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봉사위원	이상배 당회부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반말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회공부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중 선교위원	한홍연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욱 7교구장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안내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환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유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박요셉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정형 김산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효섭 홍정화